

'89年度 經濟 展望과 景氣 動向

한 기 춘 /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박사

1. 序 語

經濟와 政治는 어느面에서 보나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요즈음 우리나라의 經濟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5共特委, 光州民主化運動 聽問會, 言論問題 聽問會 등의 政治的 소용돌이속에서도 우리나라 經濟는 '88年 중에도 12.1%라는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사실은 지난해 이즈음 '88年은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 經濟成長은 지난해의 두자리 숫자에서 한자리 숫자로 멈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한편, 위에서 열거한 政治社会的 不安要因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오는 봄의 勞使紛糾의 격화 현상에 대의 무역환경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1989年의 경제전망은 그렇게 밝다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는 먼저 우리경제가 현재 안고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企業 경영여건의 변화를 살펴 보면서 1989年의 經濟전망을 하고자 한다.

2. '89年 韓國 經濟与件 变化와 展望

여기서는 韓國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与件变化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첫째는 원高·혹자기조하의 여건화문제이며, 둘째는 본

격화될 輸出 둔화현상, 셋째는 경제민주화와 勞使問題, 넷째는 금리자유화 시책의 여건변화 요인을 들 수 있다.

가. 원高·혹자기조하의 여건변화

지난 3月 10日 對美 달러貨에 대한 換率은 673 원으로 이로써 '88年 중 15.7%의 切上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1.7%의 切上이 실현된 셈이다. 美國 財務省이 지난 10月 24日 字로 議會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85年 9月의 G·5 會議以後 日本 엔貨는 92%, 台灣의 NT\$貨는 40%, 그리고 韓國 원貨는 26%밖에 切上되지 않았기 때문에 '88年 美 綜合貿易法上的 換率協商 업무조항에 규정한 대로 韓國과 台灣은 6개월 시한의 換率協商國으로 선언하므로써 원高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되어 연말에는 680원대에 이르며 오는 '89年末의 낙관선은 630원대에서 비관선은 580원대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원貨의 15.7%의 절상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經常收支의 혹자규모는 14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88年初 政府가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70억 달러 黒字의 2배를 넘는 규모에 이른다. 1986年에서 비롯하여 올해로 연 3년째의 經常收支의

흑자폭이 다른 先進 흑자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이 문제가 된다.

'88년의 흑자 142억 달러는 처GNP비중 8.4%에 이르는 높은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높다는 日本의 '85年 3.8%, 西獨 2.7%, 美国 '47年 3.7% 등의 기록에 2배를 훨씬 넘는 比重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여러가지 대외적인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經濟 운용방식도 달라질 것이며 企業經營의 여건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貿易收支의 흑자를 줄이는 政策이 전개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수출 이상으로 輸入을 늘리는 일이며 이는 국내적으로는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일과 같다. 즉, 輸出-輸入=貯蓄-投資의 관계라고 하며 지난날의 輸出金融 등 輸出支援 政策은 대폭 축소될 것이며 輸入 자유화율의 제고, 關稅率 인하, 非關稅障壁의 철폐 등의 国内市場은 그 개방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며 国内市場에 있어서의 外國제품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에는 틀림없다.

經常收支의 흑자는 우리국민들의 貯蓄 과잉현상(1987年 35.6%)과 투자와 소비 등의 내수 부족현상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흑자폭을 줄이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원高에서 나타날 「디플레이션」(Deflation)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내수진작 政策이 요망되고 있다. 투자면에서는 새해 9兆 2,000 億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해안 개발사업을 비롯한 石油化學 부문, 住宅 부문, 농공 지역 사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소비면에서도 勞使紛糾로 상승일로화에 있는 賃金引上은 근로자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소비수요와 輸入 수요의 확충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經常收支의 흑자는 資本收支의 적자로 綜合收支의 축소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나라는 그간 經常收支의 흑자와 동시에 資本收支도 흑자라는 매우 특수한 현상을 보여 주었다. 政府는 IMF 8條國으로의 이행을 진행하면서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자본거래가 외환수급상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換率의 조정으로

輸出入을 자동조정하는 기능은 약화되며 사람들은 해외자본시장에서의 「머니게임」(Money Game)에 몰두하게 되고 산업계의 정상적인 原價節減, 品質管理, 生産性 提高 등의 經營合理化에의 의욕을 상실하며 部品の 해외조달(Offshore Sourcing)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른바 企業과 産業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사람들은 애써서 製品을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는 証券놀이나 海外投資 등으로 어떻게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어 이제운용에 고도의 솜씨를 구사하는 財「테크」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 본격화될 輸出 둔화현상

원貨 切上의 輸出 단가 인상효과는 비교적 단기간(1年)에 모두 나타나는 한편 물량면에서의 감소효과는 좀더 장기간(3年間)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을 「J-Curve」 효과라 하며 원高의 효과는 절상초기(1~2年)에는 輸出 단가인상에 따라 輸出 금액이 늘어나는 切上 1年後부터는 수출단가의 인상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물량면의 감소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8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지난 1,2월에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3月上旬의 輸出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노동집약적인 섬유, 신발類, 완구인형 등의 경공업제품에서 輸出 둔화현상을 보여주어 지난해 9月末까지 봉제완구 업계의 200여개의 영세기업이 도산했으며 직류업계에서도 30~40개 업체가 도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9년에는 원貨 切上으로 원貨 표시 輸出 단가인상이 정체된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으로 輸出 기업체의 수익율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기업의 투자여욕은 크게 떨어질 것이며 따라서 고용기회의 축소와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다. 勞使紛糾 격화와 고임금 상승률

6·29宣言 이후의 政治經濟 民主化의 과정에서 勞組결성과 勞使紛爭이 증가하는 추세아래 있으며 여

소야대의 政治환경과 올림픽 이후의 여러가지 社會의 비리 문제와 미해결 등으로 勞使紛糾는 다시 격화되고 있다.

우리 經濟가 극복해 나아가야 할 과제 중 가장 지난한 일이라고 하겠다. 금년들어 2月末 현재 178 件의 紛糾발생으로 작년 동기에 비하면 62 件이나 많은 件數다. 앞으로 본격적인 賃金協商時期 (3~5月)가 되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勞使紛糾에서 연유되는 생산 및 輸出 차질액은 紛糾의 대형화와 장기화로 작년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表1〉에서 볼 수 있듯이 '89년의 생산 차질액은 '88년의 80억원에서 7,786억이나 되었으며 輸出 차질액도 '88년의 200만 달러에서 3만 2,600달러에 이르고 있다.

表 1 紛糾件數와 生産 輸出 蹉跌額

	紛糾件數	生産蹉跌額	輸出蹉跌額
'88. 1~2	116	80억 원	200百万 달러
'89. 1~2	178	7,786 "	326 "

앞서 '87년과 '88년 연이은 賃金 인상율은 소계 21.0%에 이르러 우리나라 企業경영의 여력을 모두 소진한 지금 '89년에 다시 노동생산성 향상율을 상회하는 賃金 인상률은 企業의 경영수지 악화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라. 金融政策의 변경과 자금사정의 긴박화

經營取支의 흑자폭이 연 142억 달러를 넘는 外貨는 월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11.8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매월 약 8,300억원의 通貨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해외부문으로부터의 通貨를 통화안정증권 등 상환기일 1년이내의 각종 채권발행에 의하여 흡수해 통화관리 목표내로 통화조절을 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부문의 通貨팽창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발행해온 통화안정증권의 잔고가 17兆원에 이르러 한해의 이자지급액 자체가 새로운 通貨 증가요인이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해부터 政府는 通貨 관리방식을 中央銀行 재할인제도, 기준율조정 그리고 공개시장조작 등 간접적 유동성 조절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어 지

금까지의 금융기관별 與信 한도제도는 기준율과 자금관리의 간접적 여신규제로 전환케 된다. 또한 새로운 통화지표로서 총통화(M₂)에서 장기저축성 預金을 제외하고 제2금융권의 단기유동성 예수금을 합계하여 새로운 M_{2A}라는 지표로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通貨의 신속적 공급으로 中小企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政策은 바랄 수 없으나 大企業 여신규제 등으로 마련되는 여유자금은 中小企業 지원으로 돌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中小企業 구조조정자금 3,800억원 및 특별 外貨대출 20억 달러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8년 12月 5일부터 여신금리와 일부 장기 여신금리를 중심으로 한 금리자유화 시책은 우선 '89년 상반기까지는 차입비용상 企業의 금리부담을 1~2% 가량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주식의 時價發行이나 사체에 의한 자금조달, 앞으로 海外市場에서의 外貨表示 起債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어 資本調達源이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92년까지의 자본자유화에 부응한 國內외의 채권의 현물 및 선물거래의 길이 서서히 트이게 될 것으로 본다.

3. '89년 經濟展望

가. 國際經濟 展望

'87년에 비하여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88년의 世界經濟는 예상보다 호전되어 다음 〈表2〉에서 볼 수 있듯이 '88년의 성장률을 3.5%로 '87년의 3.1%를 0.4% 「포인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89년에는 다시 둔화되어 선진공업국의 성장세가 '83~'87년의 평균 성장률 3.3%에서 2.5%로 크게 둔화되어 世界전체의 성장률은 2.7%로 둔화될 전망이다.

〈表2〉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률은 '88년 금년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선진 선진국은 7.7% 西歐諸국은 10.2%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물가는 '88년 상승률 수준이 '8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4.5% 상승률과 西歐諸국은

表2 世界 經濟 展望

	1976-'79	'80-'82	'83-'87	'87	'88	'89
經濟 成長						
世界	4.1	1.5	3.3	3.1	3.5	2.7
先進 國	3.8	1.2	3.3	3.2	3.8	2.5
開途 國	5.7	1.6	2.6	2.4	2.9	3.6
共產 國	3.5	2.4	3.8	3.0	3.1	3.2
失業 率						
先進 國	5.7	7.3	8.6	8.3	7.8	7.7
西歐 諸國	5.8	8.1	10.8	11.0	10.6	10.2
物 價 ¹⁾						
先進 國	8.7	9.6	4.5	3.7	4.3	4.5
西歐 諸國	10.6	12.1	6.0	3.9	5.3	4.9

註: 1) 民間消費「디플레이터」基準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s, 1988. 10.

4.9% 상승율로 '88년보다 0.4% 「포인트」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 <表3>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경제의 호전에 따라 '88년 中の 世界 교역량은 6.8%의 신장세를 전망하고 있으나 '89년에는 2.0% 「포인트」나 낮은 4.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美國과 日本의 교역량의 신장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으로 美國의 '88년 4.6%에서 '89년 1.3%로 日本은 15.7%에서 9.9%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表3 世界 交易量 展望¹⁾

	'85	'86	'87	'88	'89
世界	4.1	7.6	8.2	6.8	4.8
先進 國	4.8	9.1	7.9	7.6	4.4
美 國	5.4	13.5	6.5	4.6	1.3
日 本	0.2	13.3	9.1	15.7	9.9
開途 國					
產油 國	-11.4	-22.2	-10.8	-7.0	1.4
非產油 國	7.2	14.4	15.1	6.7	7.1

註: 1) '70年 不變價格 輸入量 增加率임.
 資料: DRI, European Review, 1988. 11.

4. 國內 經濟 展望

가. 成長率

지난 3年間 지속되어온 고도성장세는 '89년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8년 3/4분기말까지의 성장실적치는 12.1%로서 '88년 4/4분기의 성장률을 10.0%만 생각해도 '88년의 성장률은 11.6%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表4>에서 볼 수 있듯이 韓國開發研究院에서 전망한 '89년 성장률은 8.5%로 보고 있으나 지난해말의 금년도 성장률을 8.5%로 이를 지난 '88년 상반기말에는 9.5%로 고쳐 잡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11.5%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점을 勸察할 때에 '89년의 상기 전망성장률 8.5%로 1% 「포인트」 정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년도의 실적치가 당초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된 현재는 輸出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87年)말 韓國開發院, 韓國銀行, 政府 모두 約束이나 하듯 520억 달러대의 輸出이 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89년 새해에는 輸出 둔화현상을 예상하더라도 금년도의 신장 전체가 명년도 상반기까지는 영향을 미쳐 성장세를 지탱해 줄 것으로 믿어진다.

民間設備 投資도 圓高 현상과 勞使紛糾의 격화 등으로 투자 의욕의 감퇴로 그 증가세는 '88년 3/4분기까지의 11.0%에서 '89년 중에는 8.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소비는 임금인상애

表4 國內 經濟 展望

	1987 ¹⁾	1988			1989
		상반	하반	연간	
GNP 成長率 (%)	12.0	11.8	10.0	10.8	8.5
總 消 費	7.7	7.8	8.6	8.2	8.0
固 定 投 資	13.6	9.2	11.5	10.5	8.7
商 品 取 出	24.4	17.8	12.2	14.8	8.8
商 品 取 入	21.8	13.5	19.0	16.4	13.5
經常取支(억 달러)	98.5	60.0	58.0	118.0	90.0
貿易 取 支	76.6	47.0	43.0	90.0	70.0
輸 出	462.4	270.0	305.0	575.0	649.0
輸 入	385.8	223.0	262.0	485.0	579.0
貿易外 및 純移轉	21.9	13.0	15.0	28.0	20.0
物 價 上 昇 率 ²⁾					
都 売 物 價	0.5	2.7	3.3	3.0	3.0
消 費 者 物 價	3.0	7.3	7.7	7.5	7.5

註: 1) 韓國銀行暫定值 2) 期中平均, 前年同期比 上昇率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우리經濟의 當面課題와 政策 運用方向」 1988. 10.

서 오는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증대로 '89年에도 8.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物 価

88年 연중 都売物價의 상승률은 2.3%, 消費者物價의 상승률은 7.2%로 政府가 연초 상한선으로 책정된 각각 2.0%와 7.0%를 능가하였다.

'89年에 들어서도 2月末 현재 消費者物價는 0.5%나 오르고 있다. 오는 봄의 賃金상승률과 國際原資材 가격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믿어지나, 지난 '88年の 물가고에 가산된 실질임금 인상분을 합하게 될 때 올해 못지 않는 큰 폭의 임금인상률(13~16%)에서 체결되고 國際原資材 가격은 世界경기의 둔화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금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都売 2.5% 消費者 7.5%의 상승률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對外去來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88年度 輸出은 607억 달러를 기록하여 28.4% 신장세를 보였으며 輸入은 518억 달러로 26.3%의 신장세를 보여 주었으나 貿易收支만으로도 89억 달러의 흑자를 '88年에는 기록하게 되어 이에 貿易外收支와 移轉計定收支의 흑자분 53억 달러를 합한다면 '88年 經常收支의

흑자는 사상 최고액인 142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89年에는 輸出 700억 달러 輸入 635억 달러 貿易收支의 흑자는 65억 달러, 貿易外 및 移轉收支 흑자를 50억 달러 소계 115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輸出 증가세 15.3%, 輸入 증가세 22.6%를 감안한 추정치이며 원貨 切上에서 오는 輸出 둔화효과를 다소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結 語

오는 '89年 새해는 우리경제가 안팎으로 일고 있는 여러가지 변화에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줄 안다. 美國經濟政策은 政權交替에 따른 對韓 통상압력은 거세질 것이며 '92年の EC 統合을 앞둔 對韓 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편 未修交國인 共產圈 시장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점은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나라안으로도 經濟民主化의 거센 물결속에 勞使協助下의 賃金引上自制, 한계에 이른 원高의 극복책, 금리자유화를 중심으로한 金融政策의 변화와 稅制改編으로 조상된 企業의 投資心理의 진작책, 흑자기조하의 通貨量 팽창속의 물가안정책 등은 우리경제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고 해결·극복해야 할 일들이라 하겠다.

